

## 비즈 프리즘 | 한일 경제갈등이 금융가에 미친 영향

# 확 줄어든 엔화 환전...은행 '애국마케팅' 활활

일본 불매운동 반영한 마케팅 활발  
유관순 등 애국지사 이미지 활용  
7월 엔화 환전, 전년비 8.0% 감소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 걸린 유관순 열사 초대형 포스터.

사진제공 | 교보생명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로 촉발된 한일간의 경제 갈등이 금융가에 적지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 금융기업들은 일본 불매운동 등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8월 15일 광복절 74주년에 맞춘 애국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복절 애국 마케팅은 매년 실시하는 국경일 홍보 전략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불매운동 등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뜨거운 상황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벤트로 고객 유치와 기업 이미지 제고를 노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1899년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한 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8일 광복 74주년·창립 120주년 기념 특판 정기예금을 내놓았다. 저축 기간은 6개월이고 연 0.8%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1.7% 금리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15일 준공식을 여는 서울 인사동 '3·1독립선언광장'에 1억 원을 기부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3월 제작

한 '대한이 살았다' 영상 공유 등을 바탕으로 1억 원의 후원금을 조성했다. 교보생명은 25일까지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전면에 유관순 열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초대형 포스터를 붙인다.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모티브로 했으며 배경은 무궁화와 태극문양으로 장식했다. 삼성카드사는 18일까지 '인생락서' 홈

페이지에 '대한민국 만세' 메시지를 남기는 고객을 대상으로 운동주의 시가 있는 '동주의 손수건'을 선물한다. 이밖에 신한중앙회는 7일부터 증금리 신용대출 '신협 8·15 해방대출'을 판매 중이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연 3.10~8.15% 금리로 알아탈 수 있다. 한편, 일본여행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7월 엔화 환전이 크게 줄어 들었다. 5대 시중은행의 7월 엔화 환전은 총 225억 엔(약 2579억 원)으로 나타났다. 6월(244억 엔)과 비교해 7.7%, 전년 같은 기간(245억 엔) 보다는 8.0% 감소했다. 통상 휴가철이 시작하는 7월은 6월보다 환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일본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7월부터 본격화되고 있어 8월에는 엔화 환전이 더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한눈으로 보는 경제

12일

코스피지수	1942.29	▲	+4.54
코스닥지수	594.17	▲	+4.13
日 닛케이 지수	2만684.82	▲	+91.47
中 상하이 종합	2814.99	▲	+40.24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19	▲	+0.02
환율 (원·달러)	1218.00	▲	+6.00
국내금값 (원/그램)	5만8365.72	▼	-140.48

## 롭스·랄라블라 등 H&B스토어 '험한 발언 논란' DHC 판매중단

혐한 및 역사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일본 화장품 업체 DHC에 대해 국내 헬스&뷰티(H&B)스토어가 판매 중단 및 진열 변경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롯데쇼핑의 로브스는 DHC 제품을 온라인 물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GS리테일의 랄라블라도 온라인물 판매를 중지하고 남아있는 오프라인 물량은 매대 구석이나 하단으로 진열을 변경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은 각 오프라인 매장에 DHC 제품 진열을 뒤쪽으로 배치하는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 한편 DHC는 자회사 DHC텔레비전에 출연한 패널이 한국을 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내 소비자들은 DHC 제품 불매운동을 넘어 퇴출운동을 펼치고 있다.

## 시중은행, 조직개편 마무리...“영업력 강화 목표”

### 본점 인력, 일반 영업점에 재배치

최근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목표로 영업력 강화와 수익성 다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본점 임직원들을 일반 영업점 및 고객 수가 많은 금융센터 등으로 재배치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춘 인력 효율화로 현장 영업력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이다. 지성규 은행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한 KEB하나은행은 기존 75개였던 본점 부서를 통합·흡수시켜 66개 부서로 줄이고 274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감축 인력은 글로벌 등 미래 핵심성장부문에 혼잡 영업점으로 재배치했다. 최적화된 조직구현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성과 및 미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KEB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진옥동 은행장 취임 후 조직개편 및 인



신한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제공 | 신한은행

사를 한 신한은행도 영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150여 명의 본점 실무진급 인력을 영업점으로 보냈다. 진 은행장이 강조하는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한 영업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도 본점에서 70여 명의 인력을 영업점으로 배치했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글로벌IB금융부, 중견기업 전략영업본부, 퇴직연금자산관리센터 신설 등 수익성 다각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정정욱 기자

## 삼성·LG, 美 특허등록 '톱10' 나란히 차지

### 일본은 캐논 1개 뿐...10년 새 급감

한국의 삼성전자가 LG전자가 미국에서 특허등록 상위 10대 기업에 나란히 올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PO)가 발표한 '2018년 미국 특허등록 상위 300대 기업·기관'에서 삼성전자는 미국 IBM에 이어 2위에 올랐고, LG전자는 7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12년 연속 2위를 유지했고, LG전자도 3년 연속 10위 안에 들었다.

이번 IPO 발표에서 미국기업은 10위 안에 IBM 외에 제너럴일렉트릭(GE), 인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쉘컴 등 무려 6개가 들었다. 대만 반도체 업체 TSMC는 8위에 올랐다.

반면 한때 글로벌 기술을 주도했던 일본 기업들은 이번 발표에서 상위 10위 안에

순위	2018년	2013년	2008년
1	IBM(미국)	IBM(미국)	IBM(미국)
2	삼성전자(한국)	삼성전자(한국)	삼성전자(한국)
3	캐논(일본)	캐논(일본)	히타치(일본)
4	GE(미국)	소니(일본)	캐논(일본)
5	인텔(미국)	LG전자(한국)	마이크로소프트(미국)
6	알파벳(미국)	마이크로소프트(미국)	인텔(미국)
7	LG전자(한국)	도시바(일본)	파나소닉(일본)
8	TSMC(대만)	파나소닉	도시바(일본)
9	마이크로소프트(미국)	히타치(일본)	후지쓰(일본)
10	쉘컴(미국)	구글(미국)	소니(일본)

\* 자료: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PO) 보고서

3위의 캐논은 하나만 올랐다. 2013년 5개(캐논,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히타치), 2008년 6개(히타치, 캐논, 파나소닉, 도시바, 후지쓰, 소니)가 각각 톱10에 오른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 롯데카드 '렛츠 엘' 8월 이벤트 진행

롯데카드가 '렛츠 엘(Let's L·사진) 8월 이벤트를 실시한다. 8월 달력에 알파벳 L이 그려지는 매주 월요일과 마지막 주에 이용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에는 롯데 계열사에서 엘페이 간편결제 시 10%를 오프포인트로 적립해준다. 19일은 롯데시네마와 세븐일레븐, 26일은 롯데홈쇼핑에서 혜택을 제공하며 각 계열사 별로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적립된다. 마지막 주에는 배달앱 요기요에서 1만5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을 결제일 할인해준다.

정정욱 기자

## 교육·퍼즐

### 에듀윌

점점 어려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 “공인중개사 전략?...모의고사 통해 취약점 보완하라”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26일 시행된다. 12일부터 21일까지 시험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등 시험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13만8000여 명이 1차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돼 합격률이 전년 대비 10% 하락한 약 21%를 기록했다.

점점 어려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생들의 학습 열기가 매우 뜨겁다.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현명할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합격전략 연구소는 “두 달 정도 남은 현 상황에서는 80% 이상 출제되는 판례와 같이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에 집중해 마지막까지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실전 모의고사 등을 통해 실전 감각을 올려 취약점을 보완하는 학습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이벤트도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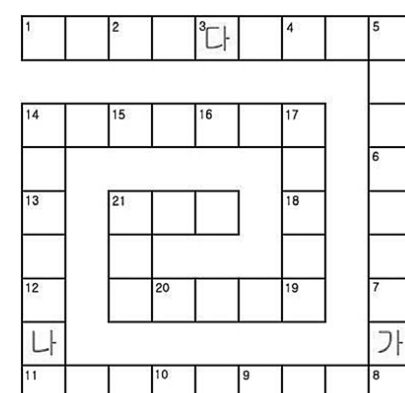
‘합격여약 특강’ ‘시크릿밴드 초대’ ‘공인중개사 특별 서비스 우선알림’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주 틀린 200제’는 실제 수험생이 자주 틀리고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를 엄선한 자료다. 특히 ‘D-30 전국모의고사 50% 할인권’ ‘자주 틀린 200제(PDF)’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에듀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행 중이다. 제30회 시험 원서접수를 인종하지만 하면 ‘공인중개사 접수비 환급’ (환급대상자에 한함) ‘D-30 전국모의고사 50% 할인권’ ‘자주 틀린 200제(PDF)’

### ■ 낱말문제



01. 나이가 같은 사람끼리 친목을 꾀하기 위하여 맺는 계. 02. 전 차 좁쌀로 담가서 그다음 날 닭이우는 새벽녘에 먹을 수 있도록 빚는 술. 03. 어떤 일에 주장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 04.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05. 어떤 동기가 있어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

가짐을 버리고 완전히 달라짐. 06.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07. 가진 것이 없음. 08.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09. 기뻐서 크게 부르짖는 소리. 10. 자신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새·짐승 등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일. 11. 핀란드식의 증기 목욕. 12. 집을 떠나 가까운 곳에 잠시 다녀오는 일. 13. 열마쯤씩 있다가 가끔. 14. 어류 따위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정한 기간. 15.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16. 술을 권하는 노래. 17. 집안 살림에 드는 비용. 18. 건물이나 차량 등에서, 평소에는 닫아 두다가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만 열어서 사용하는 출입구. 19. 아홉 자나 되는

###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나.다.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 제목이 됩니다.

